'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남자의 외도 이유는 딱 한가지, 한번 자겠다는 생각

여자들이 외도를 할때는, 남편에게 얻을 수 없는 설레임, 관심과 애정을 갖는 관계, 성적 욕망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원합니다.

나를 여자로 봐주고 친밀감과 교감을 갖는 존재, 여자들이 결혼으로 이루고 싶은 꿈인지도 모릅니다. 결혼에서도 얻지 못한 이 관계가 외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는 착각, 이렇게라도 이루고 싶다는 희망, 신데렐라와 하이틴로맨스의 위대한 힘이겠지요.

자, 그럼 남자들은 왜 외도를 할까요? 그들은 남의 아내를 왜 만나러 나올까요? 이 질문에 지구상의 모든 남자들이 솔직한 한가지 답을 줄겁니다. 남자들이 아내 아닌 여자에게 돈쓰고 시간쓰는 이유는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자겠다는 생각….

외도는 돈쓰고 시간쓰고 신경쓰고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런 과다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그 수많은 불륜이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상대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집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홍익인간, 사해동포주의의 화신이 아닌한 불가능한 일이지요.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 외간 남자와 섹스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외도하는 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삶이 비극적인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달콤한 사랑의 말만 속삭이러 나오는 남자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외도에서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술마시고 사랑의 말을 적당히 주고받고 섹스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관계 자체가 휘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 외도입니다.

외도는 생활이 축적되지 않는 감정만의 관계, 꽃처럼 꾸미고 나와서 웃고 떠드는 것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기약따위는 안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루어지는 게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지요. 여자들은 상대에 관한 깊은 관심, 약속, 그리고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에서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수영하고 싶은 사람이 산에 오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외도라는 게임의 룰은 어쩌면 남자들의 이해와 욕구에 걸맞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 남자의 관심은 여자의 내면이나 존재에 있지 않고, 한가한 시간에 안전하게 같이 잘 여분의 여자에 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모르는걸 낯선 타인인 그들이 알 리가 없지요.

그들의 관심은 나의 내면이나 나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한가한 시간에 안전하게 같이 잘 여분의 여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들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댁과 아이와 생활이 한 셋트로 딸려오는 것을 피할 수 없지요.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솔직히 여자분들의 외도는 말리고 싶습니다. 위험하고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비도덕적이니까? 아니요. 여기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요.

여기가 아니니까요. 잘못 알고 계시니까요. 산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삶과 생활 전체가 아닌, 한컷 한컷의 그림은 아름답지요. 영화와 소설이 아름다운 이유일겁니다. 비극은 우리가 영화나 소설처럼 띄엄띄엄 살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뉴스퀴즈

57. '마린보이'로 불리는 이 선수가 지난 25일 오후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기적같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3분44초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태환 ② 강용환 ③ 이안 소프 ④ 그랜트 해켓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0일(음 2월 12일 癸亥)

子 36년생 남의 말을 敬聽하라. 48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보라. 60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72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양하듯 지내라. 84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전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2, 34

丑 37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4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보라. 61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73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쌓아놓은 공로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85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1, 32

寅 38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50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62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탈이 없으리라. 74년생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8, 35

卯 39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된다. 51년생 혼자서 노는 격이니 재미가 없다 이웃과 정을 나누라. 63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잡으라. 75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1, 41

辰 40년생 초행길은 불편하니 살펴서 행동하라. 52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64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76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 20, 38

巳 41년생 다시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이니 전진하라. 53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마라. 65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77년생 순풍과 역풍이 오락가락하니 조심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30

午 42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4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6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펴보라. 78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1, 43

未 43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5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틀이 마련된다. 67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한다. 79년생 금전 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 0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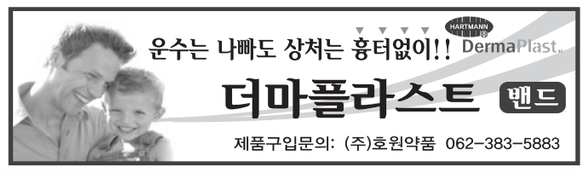
申 44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작다. 56년생 절대 주변 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뢰로써 진행하라. 68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80년생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이니 상심하지는 마라. 행운의 숫자 : 23, 42

酉 45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7년생 암중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69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81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4, 28

戌 46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8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야 한다. 70년생 불연이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지내라. 82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록소록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 24, 44

亥 47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9년생 재물로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71년생 불만과 불평은 본인의 잘못이다. 83년생 서류와 윗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1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네티즌의 시선 집중 '국민 오누이'

'국민 오누이'에 대한 관심으로 인터넷이 들썩거렸다. 지난 25일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 제 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18·경기고)과 24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김연아(17·군포 수리고)의 활약에 대해 네티즌들은 폭발적 관심을 보였다. 이들의 주요 경기 장면 동영상은 검색어에서 빠지지 않았고 미니 홈피는 칭찬과 격려의 글을 올리려는 방문객들이 잇따랐다.

반면 박태환의 경기와 관련, 중계권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생중계로 방송하지 않은 KBS 방송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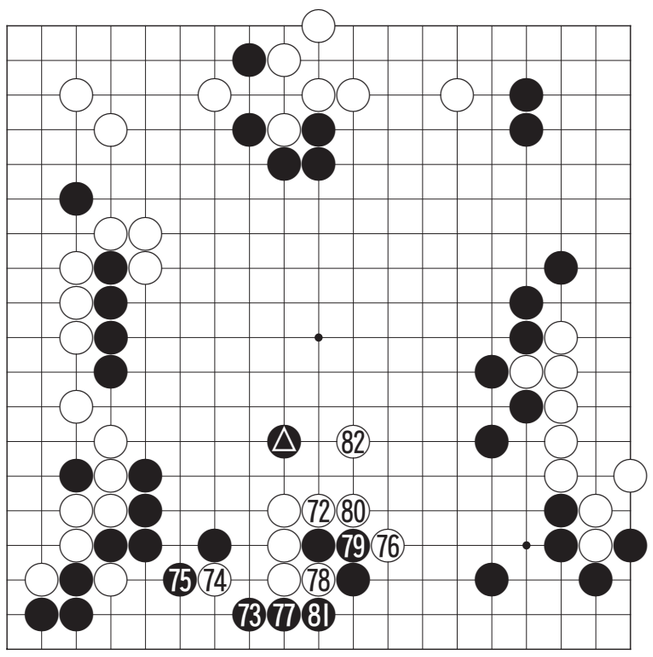
손미나(35) KBS 아나운서가 5월 10일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도 클릭 세례를 받았다.

또 '출산하는 바비인형'도 화제가 됐다. 최근 해외 연예블로그에 올려놓은 '바비 인형 출산'이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출산하는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연출한 것. 인형이 진통을 느껴 옷을 벗고 출산 준비를 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질 입구로 아기가 나오는 모습, 태어난 아기를 깨끗이 씻기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외 코미디언 심현섭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말을 하면서 심현섭 아버지도 검색어에 올랐다. 심현섭의 아버지는 지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고로 순국한 고 심상우 의원으로, 전남매일신문 사장을 역임하고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청와대비서관을 지냈다.

인기 가수 채연이 다음달 정규 앨범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키스신이 포함된 신작 뮤직비디오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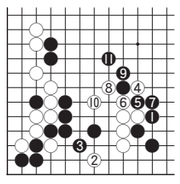
4집을 발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채연.



제11기 SK가스배 프로10걸전

기회를 놓친 소탐대실 6보(72~82)

白 이재웅 5단 黑 김수용 초단



〈참고도〉

흑 △로 모자를 씌워 백을 공격해온 장면이다. 이재웅 5단은 괴로운 표정으로 일단 72로 꼬부렸는데 이때 김수용 초단은 느닷없이 흑 73으로 아래쪽을 두어간다.

이것은 실리를 챙기면서 근거를 뺏고 밖으로 내몰자는 실리파 김수용 다운 발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수로는 무조건 '참고도'의 흑 1로 젖히고 싶다. 백 2로 두더라도 아래에서 사는 수는 없으며 백은 4로 붙이는 정도인데 11까지 중앙에 거대한 흑 세력이 완성된다. 이것이라면 흑의 우세가 확립된다.

숨통이 트인 백이 76으로 눌러오자 응수가 곤란해졌다. 궁여지책으로 흑 77로 2선을 밀었으나 이것은 공격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웅 5단이 기민하게 백 78을 선수하고 80으로 막자 다시 흑 81로 넘지않을 수 없어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재웅 5단이 기분좋게 78로 뛰어나갔으나 이 수가 또 의문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배준희 초단, 윤준상 5단 제압

배준희 초단이 최근 스카이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 B조 본선리그에서 윤준상 5단을 189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최근 국수타이틀을 따낸 윤 5단은 종반 좌상변 끝내기에서 '장문' 착각을 일으키면서 신예 배준희 초단에게 허망하게 무너졌다.

승리한 배 초단은 올 강원랜드배 본선리그에 진출하는 등 11승 7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대회는 만 25세, 5단 이하의 기사들만 참가할 수 있으며 모두 12명의 신예 기사들이 A, B 두 개 조로 나눠 리그전을 벌인다. 우승상금은 1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72>

You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그건 몰랐는데

A:You should try to eat more raw carrots.
B:More raw carrots?
A:Yes, they clean your teeth and help prevent cancer.
B:Really? **You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A:당근을 더 드셔야만 해요.
B:당근을 더? 그것도 날것으로?
A:그래요, 이도 깨끗하게 해주고, 암 예방도 되잖아요.
B:정말? **몰랐는데.**

carrots : 당근(제품), carrot = 당근
cancer : 암
You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 You don't say(정말?)
= Fancy that (놀라워)
= Isn't that something ?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72>

お大事(だいじ)に

몸 조리 잘 하세요

A:あ、市川さん おひさしぶりですね。おげんきですか。
B:おかげさまで、南さんは元氣(げんき)ですか。
A:それが かぜをひいてしまって。
B:あら、**お大事に**。

A:아, 이치카와씨, 오래간만이네요. 잘지내시죠.
B:덕분에 잘지내요. 남씨는 잘지내세요.
A:그게 감기에 걸려버려서요.
B:어머, **몸 조리 잘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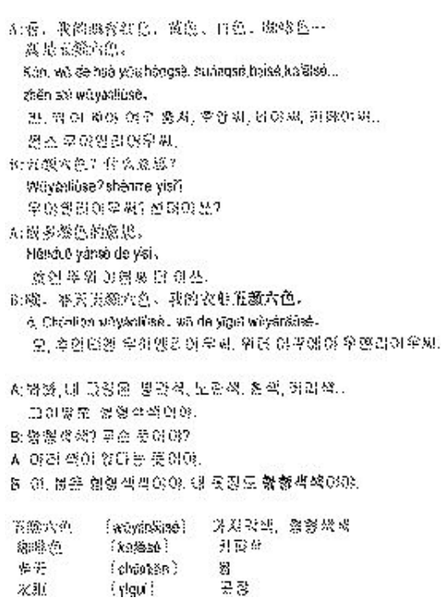
風邪(かぜ)をひく : 감기에 걸리다
お大事(だいじ)に : 몸조리 잘하세요
元氣(げんき) : 건강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63>

五顏六色

형형색색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90>

猶 豫(유 예)

같을 유, 미리 예

유예(猶豫)는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본래 유(猶)나 예(豫)는 동물이다.

유(猶)는 원숭이 종류이다. 의심(疑心)이 많아 바스락 소리만 들어도 나무위로 조르륵 올라가 나뭇잎 사이에 숨었다가, 별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나무에서 내려와 놀다가 똑 같은 행동을 하루 종일 되풀이 한다.

예(豫)는 코끼리(象)의 일종이다.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지금의 코끼리보다 몸집이 훨씬 컸던 맘모스의 일종이라고 한다. 중국의 남방지역에는 예전부터 코끼리가 많이 서식하여 하남성(河南省)을 '예(豫)'라고 불렀을 정도이다. 예(豫)는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겁을 잘 내고 의심이 많았다. 얕은 개울물을 건너는데도 행여 해치는 것이 없을까 주저주저하다가 결국 건너지 못하고 만다.

이처럼 유(猶)나 예(豫)는 의심이 많아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동물들이고, 여기에서 '유예'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